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Naeuiwonseonsaengan*(List of Royal Doctors)

安 相 佑 (AHN, Sang-w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내의원선생안』의 편찬 동기 |
| 2. 『내의원선생안』의 서지적 성격 | 4. 수록내용과 의의 |
| 2.1 저작인물 | <참고문헌> |
| 2.2 저작시기와 전본 계통 | |

<초 록>

『내의원선생안』은 내의원에서 근무한 내의들의 인적사항과 활약상을 기록한 일종의 간략한 인물지이다. 여기에는 의원 개개인 별로 자, 호, 본관, 출생년, 입원한 해 등이 기록되어 있어 내의원 소속원들의 인명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原任, 久任 등의 간략한 인적사항이 시대순으로 누적되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활동배경이 되는 부, 조, 증조로 이어지는 가계와 외가, 처가에 이르는 성장배경 등이 망라되어 있어 동시대 한 인물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포괄되어 있어 자료가치가 크다.

본고에서는 앞선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학사적 입장에서 허준(1539~1615)을 비롯한 이들 내의원 의관들의 계통성과 주체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주목표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사본이 갖고 있는 서지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서문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편찬 동기와 편찬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이어 이 선생안에서 다루고 있는 각 주제 항목들의 특성과 주안점 그리고 별기 항목에 나타난 기재내용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선생안이 가지는 기록의 의미와 의학적 가치를 탐구해 보았다.

문무 양반중심의 조선시대 사회제도 안에서 400여년에 걸쳐 중인신분의 기술직 관료로서 활동한 내의원 의관들의 인적사항과 가계, 관력 등이 기재된 선생안은 조선 후기 한국의 학사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고증자료로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특히 허준의학전서에 수록된 본 『내의원선생안』은 기존에 알려진 몇 가지 선생안이나 의과보에 수록되지 않은 허준의 자찬 서문을 싣고 있어 허준과 조선 중기 의학연구에 매우 큰 연구가치가 있다. 또한 기재방식이나 수록한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자료와 상당 부분 상이점을 갖고 있어 역대의 학인물에 많은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

要語: 내의원, 선생안, 한의학, 동의보감, 허준, 의학사, 서지학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개발 (K1311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dongjae11@gmail.com)

접수일: 2013년 12월 12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As a brief bibliography of doctors who worked at Naeuiwon (Royal Hospital), *Naeuiwonseonsaengan* (List of Royal Doctors) describes the doctors' profiles and activities. It lists the individual doctors' pen name, alias, original family clan, date of birth, and time of joining the Royal Hospital and chronologically describes the bibliographic data of former doctors and their parental and maternal forefathers including fathers, grandfathers, and great-grand father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As such, the data are very valuabl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 history - examined the lineage and philosophies of these royal doctors and officials including Heo Jun(1539~1615) (author of *Donguibogam*, which was registered as th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2009).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bibliographies of *Naeuiwonseonsaengan*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compilation thereof and compilation methods based on the preface of the book. The book's significance and medical values were examined by reviewing the book's theme items and attachments.

Royal doctors served as technocrats for 400 years in nobility-oriented Joseon society, and their personal records are considered essential for studying Korean medicine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period. Listed in Heo Jun's book of medicine, *Naeuiwonseonsaengan* presents Heo Jun's own preface and describes contents not found in several books of the same kind and *Uigwabo* (list of passers of the state-run Gwageo examination) ; it is very valuable in researching Heo Jun and medicine of the mid-Joseon period. Moreover, it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other medical records in terms of description methods and contents, making examining historical figures engaging in medicine very worthwhile.

Key words: Naeuiwon (Royal Hospital),
Seonsaengan (List of Doctors), Korean medicine,
Donguibogam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Heo Jun, medical history, Bibliography

1. 서론

『내의원선생안』은 내의원에 入屬되어 근무한 내의들의 인적사항과 활약상을 기록한 일종의 간략한 인물지이다. 여기에는 의원 개개인 별로 자, 호, 본관, 출생년, 입원한 해 등이 기록되어 있어 내의원 소속원들의 인명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原任, 久任 등의 간략한 인적사항이 시대순으로 누적되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활동배경이 되는 부, 조, 증조로 이어지는 가계와 외가, 처가에 이르는 성장배경 등이 망라되어 있어 동시대 한 인물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포괄되어 있어 자료 가치가 크다.

또한 이러한 선생안류¹⁾는 대부분 중인신분인 의관들의 가계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족보나 문집 등 인물연구에 필수적인 기록 자료들이 거의 희소한 상황에서 생물년 확인, 주요 업적 등 왕조시대 기술직 중인들의 삶과 활약상을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간 이러한 류의 선생안²⁾이나 의과보³⁾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또 내의원 의관이 아닌 여타 의약관청에 속한 관리들에 대한 先生案⁴⁾이나 혹은 생도들의 전함을 기록한 生徒案⁵⁾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대개 순수 의학사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의관을 비롯한 譯官, 算士 등 기술직 중인 家系들이 서로 간에 通婚과 인적 결속을 통해 세대

1) 여기서 先生이란 ‘이미 遞去한 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先生案이란 어떤 분야의 관직을 역임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완희, 『조선후기의 수령제 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경북대, 1992)을 참조.

2) 『敎誨內醫計士先生案』(장서각 소장).; 『太醫院先生案』(이우성, “瘡疹集 외 1종,” 『서벽의 사해외수질본 7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3) 『醫等第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醫科先生案』(서울대도서관 소장).; 『醫科八世譜』(규장각 소장).

4) 『內鍼醫先生案』, 『醫藥同參先生案』(이우성, “太醫院先生案,” 『서벽의사해외수질본 7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5) 典醫監 의학생도들의 명단이 기재된 『前衛生徒案』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고로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6권 1호(2013. 9), 기타 의과보를 연구한 논고로는 이남희, “장서각 의팔세보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장서각』 제21집(2009. 4)을 들 수 있다.

간에 신분과 직업을 전승하고 專有化했던 신분질서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사회사적 연구⁶⁾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능별로는 조선시대 외교관과 통역의 역할을 겸하였던 譯官이나 법률을 다루는 律學, 전통과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籌學 혹은 算士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⁷⁾ 그간 의학사 차원에서 의학인물에 대하여 논구한 연구성과도 없진 않으나 몇몇 현달한 인물한 집중하거나 역사상 유명인물 중심으로 열거한 단편적인 접근이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⁸⁾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신분제를 유지한 조선시대 사회에서 기술직을 도맡아온 중인신분 가계, 그중에서도 특히 의관들의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술상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앞선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사회사적 관심보다는 좀 더 의학사적 입장에서 허준을 비롯한 이들 내의원 의관들의 계통성과 주체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주목표로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사본이 갖고 있는 서지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서문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편찬 동기와 편찬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어 이 선생안에서 다루고 있는 각 주제 항목들의 특성과 주안점 그리고 별기 항목에 나타난 기재내용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선생안이 가지는 기록 자료로서의 의미와 의과학적 가치를 탐구해 보기로 하였다.

6) 김양수, 이규근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양수 외,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동방학지』 제136집(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12), 37-90. ; 이규근, “조선후기 內醫院 醫官 연구 - 내의원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집(조선시대사학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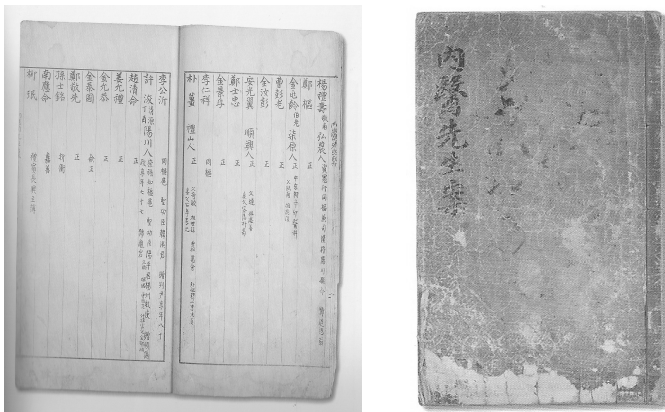
7) 이남희, “조선 전기의 율관: 그 신분적 성격과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5권(고려사학회, 2003), 341-375. ; 한미경, “역과방목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서지학회, 2005. 6), 341-376. ; 한미경, “역과보에 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6. 6), 125-150. ; 한미경, “역과유집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서지학회, 2006. 9), 185-214. ; 한미경, “조선의 수학자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서지학회, 2011. 12), 287-409. ; 이남희, “조선후기 주학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고문서연구』 39권(한국고문서학회, 2011) 등등.

8) 김종덕, 안상우, 이경성, 『이제마 평전』(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 강연석, 김남일,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Ⅰ ~ Ⅴ)(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011). ;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 儒醫列傳』(서울: 들녘, 2011). ;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서울: 들녘, 2011). ; 박훈평, 『조선의인지』(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등이 대표적.

2. 『내의원선생안』의 서지적 성격

이 선생안은 필자가 2004년 허준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강서구로부터 도록 집필을 의뢰받아 소장유물과 서책류의 수록대상 여부를 검토하던 중 처음 그 가치가 인지되어 이듬해인 2005년 3월 허준박물관 도록에 편입되어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선생안에 기록된 내용들의 연구 가치와는 별개로 허준의 명의로 된 서문과 고종 재위 무렵까지 이어지는 기재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학술적 논란의 여지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 소개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2007년부터 본격화된 동의보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이외의 허준의 저작물을 정리하고 그 학술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는 2013년 동의보감 간행 400주년을 맞이하여 허준과 당대의 의학발전상을 집중 조명할 허준의학전서가 기획됨에 따라 허준의 저작 가운데 하나로 이 책을 편입하여 원문을 영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현대어로 번역하여 펴냈다.⁹⁾



<그림 1> 『내의원선생안』 본문과 표지¹⁰⁾

9) 허준의학전서 기획 당시에는 『太醫院先生案』과의 명칭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표지서명인 『내의원선생안』을 전서명으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서지학계의 원칙에 따라 권수제인 『內醫院先生案』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內醫先生家序	내의원선생안 서문	後序	내의원선생안 內醫先生家序
院以內醫爲名。乃古之侍醫。而前 今天朝之太醫。是也。設局常於近 密。實事調和御藥。眞眞任。不致 重且太平。院都有生以來。餘者尚 數百人。王孫之風。失而無傳。可 惜也。幸今耳目之所聞記。雖有所 不盡者。若不以此時重書于籍。則 我東方前後和福之名。何以傳於後 也? 不似醫爲是體。乃敢斷其家。 而記其姓名如左。後之人。必指其 名。而誦之曰:「某也工。某也拙」。 千載之下。公論可現。吾黨其勉之 哉! 萬曆三十三年乙巳 三月日 許浚 識。	원의 이름을 '내의(內醫)'라고 하였으니, 곧 옛날 고려시대의 시의(侍醫)와 지금 명나라 조정의 태의(太醫)가 바로 이것이다. 국(國)을 삼키고 내 땅상 지운(支運)에까지 거침과 일 결한 곳에 두고, 실로 아약(痼疾)을 조복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그 임무가 또한 무겁고 크 지 않았는가! 내의원에는 예로부터 「선생안」이 있어서 이름을 올린 자가 거의 수백 명이었 는데, 임진왜란에 사라져버려 전하릴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의 기록이 그나마 사라지 지 않은 것이니, 만약 이 때에 다시금 문적 (文籍)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명의 원 조의 위대나 원자와 같은 평야들의 이름을 어떻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부록하지 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감히 새로 「내의원 선생안」을 마련하고, 그 실명을 아래 와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훗날의 사람들이 만 드시 그 이름을 저복하면서 의문하기를 "아무 개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개는 사물다"고 할 것인데, 천년 후의 공문을 두려워할만하니, 우리 당의 사람들이여 힘들진! 선조 38년(만력33년, 을사, 1605) 3월 30일 許浚 이 쓴다.	後序 二書刊行 玄福君 識 河宗海 加縣 法人書 撰 金順蒙 許衡 鄭鶴亭 【後記】 東主人 許衡 玄福 許宗 許宗 許宗 許宗 許宗 許衡 許世學 조	편찬 비슷한 공로원서를 지었으며 원복군(玄福君)에 봉제했다. 지르는 정은공(靖恩公)이다. 하종백 비슷한 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원인서 제자를 익임했다. 강승룡 비슷한 정승장군(鄭承將軍)에 이르렀다. 정학년 자는 비룡이다. 본관은 동래이다. 비슷한 정승 장군에 이르렀다. 아버지는 정충보이다. 정학년 은 중종조 신묘년(1531) 의와 출생이다. 박재거 비슷한 내의원(內醫院) 장에 이르렀다.

<그림 2> 『내의원선생안』 번역본(원문대역)



<그림 3> 『내의원선생안』 영인본과 전자책

10) 안상우, “『내의원선생안』 원문해제,” 『허준의학전서 7』 (보건복지가족부, 2010).

2.1 저작인물

현전본의 본문 첫 장에 위 아래로 나란히 날인된 장서인 2과의 印文을 관독해 보면 정방형에 음각한 주인에는 [方禹錫印]이라 되어 있고, 같은 크기로 양각한 주인에는 [世範]이란 명문이 들어 있다. 기술직 중인 가계들이 대대로 世傳하는 특성상 이 선생안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주인공은 결국 의관 집안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대 내의원 의관 가운데 방씨 성을 갖고 선생안을 작성 혹은 소장했을 만한 인물로 다음과 같은 이를 들 수 있다. 각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은 연구대상인 『내의원선생안』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 방태지(方泰智): 자는 사정이다. 갑진년(1724)생이다. 본관은 온양이다. 영종조 정묘년(1747) 의과 출신이다. 병술년(1766)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벼슬은 내의원(內醫院) 정에 이르렀다. 향년은 58세(1781졸)이다. 아버지는 방세범이고, 조부는 방진석이며, 증조는 방이주이다. 외조부는 전주 김씨 김유현이다. 처부는 하동 정씨 정화경이고, 처조는 정문위이며, 처증조는 방세호이다. 처외조는 온양 정씨 정의발이다.¹¹⁾
- 방우주(方禹疇): 자는 서구이다. 경인년(1770)생이다. 본관은 온양이다. 지금 주장이신 정조 기유년(1789) 의과 출신이다. 같은 해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방효민의 아들이다. 생부는 방효직이고, 생조는 방태소이며, 생증조는 방세범이다. 생외조는 김해 김씨 김익희이다. 처부는 천안 이씨 이지웅이고, 처조는 이인우이며, 처증조는 이수기이다. 처외조는 정읍 이씨 이유한이다.¹²⁾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이 집안의 현조는 단연 方震夔이다. 방진기는 1655년생으로 숙종조 을묘년(1675) 의과에 등재했으나 나이 20세에 조기 등과하였으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684년에야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마도 너무 이른 나이여서 오히려 곧바로 서용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나이 들어서는 통례원

11) 方泰智【士貞 甲辰】溫陽人 英宗朝丁卯醫科 丙戌入仕 正 享年五十八 父世範 祖震夔 曾祖以遇 外祖全州金有鉉 妻父河東鄭和敬 祖文偉 曾祖世豪 外祖溫陽鄭義淳.

12) 方禹疇【敍九 庚寅】溫陽人 今上己酉醫科 同年入仕 孝民子 生父孝直 祖泰素 曾祖世範 外祖金海金益熙 妻父天安李祉膺 祖寅佑 曾祖壽祺 外祖井邑李維翰.

인의를 지냈고, 경안찰방을 역임했으며, 외직으로는 연천과 과천현감을 지냈다. 특히 품계가 종1품 숭록대부에 이르렀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허준 이래 限品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또 75세(1729졸)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11년간 내의원의 우두머리인 首醫를 지냈다.¹³⁾

그에 관한 『내의원선생안』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방진기(方震夔): 자는 일경이다. 을미년(1655)생이다. 본관은 온양이다. 숙종조 을묘년(1675) 의과 출신이다. 갑자년(1684)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통례원 인의를 지냈고, 경안찰방을 역임했다. 품계는 종1품 숭록대부에 이르렀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외직으로는 연천과 과천현감을 지냈다. 향년은 75세(1729졸)이다. 11년간 내의원의 우두머리인 수의(首醫)를 지냈다. 아버지는 방이원이고, 조부는 방승검이며, 증조는 방현이다. 외조부는 김해 김씨 김근행이다. 처부는 강음 이씨 이평노이고, 처조는 이지한이며, 처증조는 이경남이다. 처외조는 전주 이씨 이충일이다.

그의 이러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온양 방씨 방진기의 가계는 내의원 의관 집안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으며, 실제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듯이 그의 후손 가운데 줄줄이 내의원 의관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이에 더하여 방진기의 손자인 방태여의 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태여는 1705년생으로 경종조 계묘식년(1723) 의과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등과하여 이듬해인 1724년에 곧바로 내의원에 들어왔다.¹⁴⁾ 이후 외직으로 마전과 삭녕군수를 지냈고, 부평과 통진부사를 역임했다. 오랜 내의원 경력과 아울러 1778년 74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품계가 종1품 숭록대부에 올랐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최고의 성예를 누렸다. 특히 13년간 내의원의 우두머리인 首醫를 지내면서 내의원의 공식기록인 『內醫院誌』 7편을 저술한 인물이다.¹⁵⁾

13) 方震夔【一卿 乙未】溫陽人 肅宗朝乙卯醫科 甲子入仕 引儀 慶安察訪 崇祿 知樞 漣川果川縣監 享年七十五 經首醫十一年 父以遠 祖承儉 曾祖賢 外祖金海金謹行 妻父江陰李彭老 祖之翰 曾祖敬男 外祖全州李忠一.

14) 『醫科先生案』에 그에 관해서 자가 聖得, 乙酉生이고, 외조인 김경설은 譯科 출신자이고, 후처부인 최덕령은 역시 내의원 의관 출신자임이 추가로 표기되어 있다.

- 방태여(方泰輿): 아버지는 방세겸이고, 조부는 방진기이며, 증조는 방이원이다. 외조부는 고성 김씨 김경설이다. 처부는 밀양 변씨 변정대이고, 처조는 변이화이며, 처증조는 변승업이다. 처외조는 청주한씨 한후원이다. 후처부는 해주 최씨 최덕령이고, 후처조는 최형제이며, 후처증조는 최성임이다. 후처외조는 경주 임씨 임성이다.

따라서 이들 집안에 선생안을 작성하거나 보관해 온 사실은 하등에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실제 기록의 작성자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정황과 가계의 내력, 그리고 소장인을 근거로 추정해 보았을 때, 이 사본의 작성과 기록은 온양방씨 의관가계의 顯祖인 首醫 方震夔의 유훈을 물려받은 아들 방세법에 의해 방우주가 의과에 입격하고 내의원에 입사하는 시기인 1790년경 처음 기록되고, 그 후 역시 내의원 의관을 지낸 그의 아들 방우주에 의해 추록하여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그의 아들인 방재용이 純祖 甲午科에 등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재용 역시 의과에 등재해 내의원에 입사했는데 본 선생안과는 다른 시기에 작성된 『태의선생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溫陽 方載鏞 公厚/己巳 純祖甲午科/丙申入院 禹疇 子

오히려 동 시기 의과(순조 갑오과)에 등재한 方孝惠은 같은 집안이지만 계과가 다른 인물로 방진기와 동향렬인 방진석의 증손이다. 방재용은 이 선생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과는 다소 서체가 바뀐 권미의 추록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¹⁵⁾

15) 方泰輿 【聖得 乙酉】 溫陽人 景宗癸卯醫科 甲辰入仕 崇祿 知樞 麻田朔寧郡守 富平通津府使 享年七十四 經首醫十三年 著院誌七篇 父世謙 祖震夔 曾祖以遠 外祖固城金景高 妻父密陽卞廷大 祖爾和 曾祖承業 外祖清州韓後瑗 後妻父海州崔德齡 祖衡齊 曾祖聖任 外祖慶州林城.

16)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방재용이 기록되지 못한 것은 친소 관계나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의원 입속 시기가 훨씬 뒤인 1836년(丙申, 헌종 2)으로 이 사본의 작성 당시 아직 내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방효덕(方孝惠): 자는 영여이다. 무진년(1748)생이다. 본관은 온양이다. 갑오년(1774) (식년) 의과 출신이다. 을축년(1805)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방태소이고, 조부는 방세범이며, 증조는 방진석이다. 외조부는 완산 이씨 이원도이다. 처부는 하동 정씨 정윤경이고, 처조는 정문이며, 처증조는 정세호이다. 처외조는 연안 차씨 차운대이다. 후처부는 전주 이씨 이최언이고, 조부와 증조부는 미상이다. 후처외조는 충주 지씨 지찬우이다.¹⁷⁾

따라서 이 『내의원선생안』 만큼은 허준시대에 임진왜란 이후 일실된 내의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다시 작성된 선생안을 조본으로 대대로 추록해 내려오던 것을 方震夔-方世範-方泰素-方孝惠으로 이어지는 온양 방씨 의관 가계에서 작성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 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습 의원 집안으로 보이며, 대대로 의과를 거쳐 首醫와 內醫를 배출한 대표적인 중인 의관 가계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대부 양반 가문에 비해 족벌의식이나 공경대부를 배출한 가문의식을 내세울 순 없으나 중인계층간의 통혼을 통해 중인가계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의과를 통한 기술직 관직의 세습을 꾀함으로써 전문분야의 기술의 전승을 보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의 의관들이 배출되는 양상과는 사뭇 대비되는 면모라 할 것이다.

2.2 저작시기와 전본 계통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본서는 허준 당대 이후로 역대 내의원 의관들이 그때그때 가필과 추록을 거쳐 이어져 온 인적기록물로서 최종 기록시기를 확인하여 이 사본의 저술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선생안에 최후로 기재된 이규남, 현우서 두 사람은 모두 임신년 1812년에 내의원에 배속된 자들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내용으로 가장 늦은 시기이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7) 方孝惠 【永汝 戊辰】溫陽人 甲午醫科 乙丑入仕 父泰素 祖世範 曾祖震夷 外祖完山李源道 妻父河東鄭允敬 祖文 曾祖世豪 外祖延安車運大 後妻父全州李最彥 祖 曾祖 外祖忠州池燦雨.

- 이규남(李圭南): 자는 경침이다. 경술년(1790)생이다. 본관은 정읍이다. 을축년(1805) 의과 출신이다. 임신년(1812)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원풍이다. 조부는 미상이다. 처부는 미상이다.¹⁸⁾

- 현우서(玄禹瑞)¹⁹⁾: 본관은 천녕이다.²⁰⁾

집필 당시로선 가장 최근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규남의 경우, 조부와 처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현우서의 경우에는 본관이외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에 의거하여 그가 庚戌(1790)增廣 의과 출신으로, 임신년(1812)에 내의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들 두 사람의 入院 기록이 이 선생안의 최후 기록이다. 따라서 이 사본의 최종 기술연대는 대략 1812년 전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넓게 잡아도 순조 재위 중엽인 1812년에서 1820년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의과시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 의과시에 대한 기록은 현갑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현갑(玄鉉): 자는 여함이다. 경술년(1790)생이다.
본관은 천녕이다. 경오년(1810) 의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신미년(1811)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앞서 살핀 현재덕의 아들이다. 외조부는 경주 이씨 이명존이다. 처부는 청양 김씨 김수이고, 처조는 김종윤이며, 처증조는 김기수이다. 처외조는 예산 정씨 정창억이다. 후처부는 해주 이씨 이아무개²¹⁾이다.²²⁾

그는 1810년 경오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듬해인 1811년에 입사하였기에 가장 정례에 따라 입원한 경우로 보이며, 그 다음 의과시는 1814년 갑술년에 행해

18) 李圭南 【景琛 庚戌】 井邑人 乙丑醫科 壬申入仕 父元豐 祖 妻父. 『의과선생안』에 그의 부친인 원풍은 의약동참 출신이나 조부 宗憲, 증조 德祥은 모두 計士 출신자이며, 처부인 金載謙은 別將을 지낸 인물로 의관이 아니어서 미처 추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 그는 이규남보다 빠른 庚戌(1790)增廣 의과 출신자이나 임신년(1812)에야 내의원에 들어왔다.

20) 玄禹瑞 川寧人.

21) 『의과선생안』에 이인빈(李寅賓)으로 표기되어 있다.

22) 玄鉉 【汝函 庚戌】 川寧人 庚午醫科魁 辛未入仕 在德子 外祖慶州李命存 妻父青陽金樾 祖宗潤 曾祖麒壽 外祖禮山丁昌億 後妻父海州李.

졌을 것이므로 1814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들 3건의 최종 기록을 토대로 보면 대략 1812년~1814년 사이에 추록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본문의 작성 시기에 관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착안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성 당시의 조대를 추정할 수 있는 ‘今上’ 혹은 ‘當宁’라는 표기이다. 앞선 시기 영조를 의미하는 英宗까지는 조대가 王曆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方禹疇, 秦東秀, 鄭遇, 金樞, 高景殷, 崔遠基의 登科 시기를 표기하는 문구에 ‘今上’ 혹은 ‘當宁’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각각 그 시점은 방우주의 경우, 정조 기유년(1789) 의과(今上己酉醫科), 진동수의 경우, 정조 계묘년(1783) 식년시 의과(當宁癸卯式醫科), 정우의 경우, 정조 기유년(1789) 식년시 의과(今上己酉式醫科), 김수의 경우, 정조 계묘년(1783) 식년시 의과(今上癸卯式醫科), 고경은의 경우, 정조 정유년(1777) 의과(今上丁酉醫科), 최원기의 경우, 정조 임자년(1792) 의과(今上壬子醫科)시로 기록한 것을 보아 이 부분까지는 정조 재위 시기에 전문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왜냐면 그 이전은 모두 전왕의 승하 후에 붙여지는 왕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최종 왕력은 ‘英宗’이다.

• 방우주(方禹疇): 자는 서구이다. 경인년(1770)생이다. 본관은 온양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기유년(1789) 의과 출신이다.²³⁾ (이하 앞서 기술.)

• 진동수(秦東秀): 자는 백준이다. 갑신년(1764)생이다. 본관은 풍기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계묘년(1783) 식년시 의과 출신이다. 경술년(1790)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앞서 살핀 진영의 아들이다. 처부는 남양 홍씨 홍득하이이고, 처조는 홍상관이며, 처증조는 홍대연이다. 처외조는 한산 조씨 조태진이다.²⁴⁾

• 정우(鄭遇): 자는 희운이다. 을유년(1765)생이다. 본관은 봉산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기유년(1789) 식년시 의과 출신이다. 경술년(1790)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정사현이고, 조부는 정인기이며, 증조는 정도동이다. 외

23) 方禹疇【敍九 庚寅】溫陽人 今上己酉醫科 同年入仕(이하 앞서 기술).

24) 秦東秀【伯俊 甲申】豊基人 當宁癸卯式醫科 庚戌入仕 泳子 妻父南陽洪得河 祖尙寬 曾祖大演 外祖韓山趙泰鑑.

조부는 남양 홍씨 홍대성이다. 처부는 완산 이씨 이완기이고²⁵⁾ 처조는 이제 하이며, 처증조는 이우춘이다. 처외조는 밀양 박씨 박만기이다.²⁶⁾

- 김수(金櫓): 자는 무경이다. 무인년(1758)생이다. 본관은 청양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계묘년(1783) 식년시 의과 출신이다. 경술년(1790)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김종윤이고, 조부는 김기수이며, 증조는 김민장이다. 외조부는 정읍 이씨 이창서이다. 처부는 예산 정씨 정창억이고, 처조는 정익겸이며, 처증조는 정달도이다. 처외조는 신평 한씨 한성제이다.²⁷⁾
- 고경은(高景殷): 자는 이경이다.²⁸⁾ 기사년(1749)생이다. 본관은 제주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정유년(1777) 의과 출신이다. 임자년(1792)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고응두이고, 조부는 고세혁이며,²⁹⁾ 증조는 고상휘이다. 외조부는 인동 김씨 김수이다. 처부는 경주 최씨 최창록이고, 처조는 최주화이며, 처증조는 최수강이다. 처외조는 밀양 변씨 변필화이다.³⁰⁾
- 최원기(崔遠基): 자는 여구이다. 경인년(1770)생이다. 본관은 월성이다. 지금 주상이신 정조 임자년(1792) 의과 출신이다. 계축년(1793)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최경림이고, 조부는 최태빈이며, 증조는 최정한이다. 외조부는 고성 김씨 김경진이다. 처부는 원주 변씨 변한모이고, 처조는 변소이며, 처증조는 변상겸이다. 처외조는 한산 조씨 조시백이다.³¹⁾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은 다음 장에 연이어 기록된 내용 가운데 鄭楠秀에 이르러 다시 ‘正宗庚戌醫科壬戌入仕’라고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부분은 분명 정조임금 사후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이고 따라서 이 선생안은 최소 두 번 이상

25) 『의과선생안』에는 이택기(李宅基)로 표기되어 있다.

26) 鄭遇(熙運 乙酉) 蓬山人 今上己酉式醫科 庚戌入仕 父思玄 祖寅起 曾祖道東 外祖南陽洪大成 妻父完山李完基 祖載夏 曾祖遇春 外祖密陽朴萬經.

27) 金櫓(茂卿 戊寅) 靑陽人 今上癸卯式醫科 庚戌入仕 父宗潤 祖麒壽 曾祖敏章 外祖井邑李昌瑞 妻父禮山丁昌億 祖益謙 曾祖達道 外祖新平韓聖齊.

28) 『의과선생안』에는 이경(而敬)으로 표기되어 있다.

29) 『의과선생안』에는 고세혁(世赫)으로 표기되어 있다.

30) 高景殷【爾敬 己巳】 濟州人 今上丁酉醫科 壬子入仕 父應斗 祖世赫 曾祖尙徽 外祖仁同金洙 妻父慶州崔昌祿 祖柱華 曾祖壽岡 外祖密陽卞必華.

31) 崔遠基【汝久 庚寅】 月城人 今上壬子醫科 癸丑入仕 父景濂 祖泰彬 曾祖鼎漢 外祖固城金景軫 妻父原州邊翰謨 祖燾 曾祖相謙 外祖韓山趙時璧.

나누어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남수 이후로는 정조 사후에 추록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정남수(鄭楠秀): 자는 노경이다. 갑신년(1764)생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정종 경술년(1790) 의과 출신이다. 임술년(1802)에 내의원에 들어왔다. 앞서 살핀 정위의 아들이다. 처는 남평문씨 문천수의 딸이고, 처조는 문필엽이며, 처증조는 문상빈이다. 처외조는 원주변씨 변익노이다.³²⁾

왜냐하면 본문 처음부터 현재덕까지는 거의 정자체에 가까운 정서로 필사된 반면 정남수 이후로는 다소 글씨가 커지고 흘려 쓴 행서체로 변화된 것으로 보아 정남수 이하 17인에 대한 기록은 정조 사후 순조 재위시기에 추록된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앞부분의 일부 기재 내용에 있어서는 최초 기재시에 여백을 두어 공간을 남겨 두었다가 훗날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을 예비한 것으로 보아 그때 그때 빠진 내용을 메워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선생안은 허준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기억에 의거해 복구한 일부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여 선생안의 원형을 만든 이후 대대로 추가하여 전사해 오다가 대략 정조 재위 중인 1792년~1800년 6월 이전 전문을 정사하였으며, 순조 재위 년간인 1812년~1814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17인에 대한 내용을 추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조 재위년간에 추록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정남수를 비롯하여 이규남, 현우서 등 17인이다. 이들의 생년과 의과 입격시기, 내의원 입사연도를 대비해 보면 <표 1>과 같다.

32) 鄭楠秀【老卿 甲申】慶州人 正宗庚戌醫科 壬戌入仕 瑋子 妻南平文天綬女 祖必燁 曾祖尙彬 外祖原州邊翼老.

<표 1> 순조연간 추록 인물

성 명	생 년	등과시기	입원시기	비 고
정남수(鄭楠秀)	甲申(1764)	庚戌(1790)	壬戌(1802)	正宗庚戌醫科 壬戌入仕
최증(崔曾)	乙酉(1765)	庚戌(1790)	壬戌(1802)	『의과선생안』에는 乙未(1775)년생
이복응(李福膺)	戊寅(1758)	丙午(1786)	壬戌(1802)	
이언후(李彦厚)	丁亥(1767)	丙午(1786)	壬戌(1802)	
경집(慶輯)	丙申(1776)	辛酉(1801)	壬戌(1802)	
최원(崔源)	甲申(1764)	丙午(1786)	癸亥(1803)	
박치수(朴致秀)	乙未(1775)	戊午(1798)	癸亥(1803)	
김경림(金景琳)	丙戌(1766)	庚戌(1790)	甲子(1804)	
김귀소(金龜紹)	己丑(1769)	辛酉(1801)	甲子(1804)	
방효덕(方孝惠)	戊辰(1748)	甲午(1774)	乙丑(1805)	『태의원선생안』에 이름이 孝德
김계훈(金啓勳)	丙申(1776)	戊午(1798)	乙丑(1805)	
최한식(崔漢植)	庚子(1780)	癸亥(1803)	乙丑(1805)	
김수인(金壽仁)	戊戌(1778)	乙丑(1805)	丁卯(1807)	壯元
김근원(金近源)	丙申(1776)	辛酉(1801)增廣試	辛未(1811)	등과는 『의과선생안』에 의함. 壯元
현갑(玄鉉)	庚戌(1790)	庚午(1810)	辛未(1811)	壯元
이규남(李圭南)	庚戌(1790)	乙丑(1805)	壬申(1812)	
현우서(玄禹瑞)	乙酉(1765)	庚戌(1790)增廣試	壬申(1812)	『태의원선생안』에 의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생안에 기록되는 기준은 성명이나 나이, 등과시기가 아니라 바로 내의원에 들어가는 입원 시기가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생안은 조선왕조의 모든 의관이나 고위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과에 등재하고 내의원에 입속한 내의를 자격 기준으로 입속연도의 선후에 따라 작성된 전임 혹은 현임 내의원의 인명록이라 할 수 있다.

3. 『내의원선생안』의 편찬 동기

1605년(만력 33년, 선조 38년, 을사) 3월에 허준이 저술한 것으로 기록된 서문을 통해 편찬의 동기와 저술배경을 알아보기로 하자.

내의원선생안 서문

원의 이름을 ‘내의(內醫)’라고 하였으니, 곧 옛날 고려시대의 시의(侍醫)와 지금 명나라 조정의 태의(太醫)가 바로 이것이다. 국(局)을 설치할 때 항상 지존(至尊)에게서 가깝고 밀접한 곳에 두고, 실로 어약(御藥)을 조화하는 일³³⁾을 맡고 있으니, 그 임무가 또한 무겁고 크지 않겠는가! 내의원에는 예로부터 『선생안』이 있어서 이름을 올린 자가 거의 수백 명이었는데, 임진왜란에 사라져버려 전하질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의 기억이 그나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니, 만약 이 때에 다시금 문적(文籍)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방의 전후의 화타나 편작과 같은 명의들의 이름을 어떻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감히 새로 『내의원선생안』을 마련하고, 그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훗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의론하기를 “아무개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개는 서툴다”고 할 것인데, 천년 후의 공론을 두려워할만하니, 우리 당의 사람들이여 힘쓸진저!

선조 38년(만력33년, 을사, 1605) 3월 모일
허준이 쓰다.³⁴⁾

이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의원선생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첫째, 내의원 의관들의 역사의식이다. 즉 서문의 첫머리에 “원의 이름을 ‘내의(內醫)’라고 하였으니, 곧 옛날 고려시대의 시의(侍醫)와 지금 명나라 조정의 태의(太醫)가

33) 조화어약(調和御藥), 보호성공(保護聖躬): 내의원의 직임을 대표하는 말로 『경국대전』 내의원조에 기술되어 있다. 현재 창덕궁 내의원 터에 이 글귀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으며, 영조의 어필 원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전시중이다.

34) 內醫院先生案序 院以內醫爲名, 乃古之侍醫, 而卽今天朝之太醫, 是也. 設局常於近密, 實掌調和御藥, 其爲任, 不既重且大乎! 院舊有先生案, 錄者殆數百人, 壬辰之亂, 失而無傳, 可惜也. 幸今耳目之所覩記, 猶有所不泯者, 若不以是時重書于籍, 則我東方前後和扁之名, 何以傳於後也? 不佞竊爲是懼, 乃敢新其案, 而記其姓名如左. 後之人, 必指其名, 而議之曰: “某也工, 某也拙”, 千載之下, 公論可畏, 吾黨其勉之哉! 萬曆三十三年乙巳 三月日許浚識.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내의원 고려왕조에서 황제를 모시던 侍醫 곧 內藥房 醫員들의 맥을 잇는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도 명왕조의 태의원 의관과 같다고 전제하였다. 이것은 그 직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시대적으로는 전조인 고려시대 내약방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며, 그 직품에 있어서는 명나라의 태의들과 동렬이라는 자부심이 저면에 깔려있다.

둘째, 이러한 자긍심의 저변에는 물론 지친, 즉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최상위 계층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직책이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서문에서 허준은 “국(局)을 설치할 때 항상 지존(至尊)에게서 가깝고 밀접한 곳에 두고, 실로 어약(御藥)을 조화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그 임무가 또한 무겁고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의료의 특성이 인명을 다루고 있기에 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다가 그 대상이 일반과 달라 국왕과 왕실을 호위하는 관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선생안의 전승과 역사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서문을 통해 저자는 “내의원에는 예로부터 『선생안』이 있어서 이름을 올린 자가 거의 수백 명이었는데, 임진왜란에 사라져버려 전하질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 탄식어린 술회를 남기고 있다. 이 내의원선생안 이외에 유사한 부류의 몇 가지 선생안이 전존하는데, 이와 같은 서문은 남아 있는 것은 이거이 유일하며, 서로 기재내용과 기록의 하한연대가 서로 다소 다른 것으로 보아 국초부터 이와 같은 선생안이 각 관서마다 전존해 왔고 불행이도 왜란을 통해 소실 된 이후 이 시기에 이르러 기억에 의존한 인물로부터 다시 작성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존 선생안의 명단에는 권찬, 하종해, 김순몽 등이 가장 이른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로 대략 예종, 성종, 연산조에서부터 중종 무렵에 내의원에 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대략 최초의 작성시기인 1605년 무렵, 기억의 한계로 소급할 수 있었던 상한연대가 아니었던가 싶다. 예컨대, 세종-세조연간에 활약했던 전순의, 임원준, 노중례 등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은 서문에서 다음의 언급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의 기억이 그나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니, 만약 이 때에 다시금 문적(文籍)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방의 전후의 화타나 편작과 같은 명의들의 이름을 어떻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넷째, 궁극적으로 이 선생안의 편찬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과 아울러 의술의 工拙을 논하는 포폄의식에 있다는 점에서 역사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재삼 확인된다는 점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뜻을 피력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감히 새로 『내의원 선생안』을 마련하고, 그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훗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의론하기를 ‘아무개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개는 서툴다’고 할 것인데, 천년 후의 공론을 두려워할만하니, 우리 당의 사람들이여 힘쓸진저!”라고 맺음하였다. 하지만 실제 개개인의 인물이나 행적에 대한 공과나 포폄이 기재되어 있진 않다. 다만 이러한 의식은 인조대에 간행된 『의림촬요』의 歷代醫學姓氏에 本國明醫가 수록됨으로써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요약해 보면 허준이 바야흐로 『동의보감』의 편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언해의서도 간행하지 못할 시점인 1605년에 내의원 의관들의 인명록이자 내의원의 원지와 함께 관서의 역사기록물인 선생안을 다시 집필한 것은 전후에 폐멸된 내의원의 기능을 복구하고 아울러 관서의 역사와 선후의관들의 소사를 기록함으로써 고려왕조 이래 국왕과 지친을 보살피는 내의원에 소속된 내의들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허준 사후에도 이 기록물이 누대로 전승되고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추록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수록내용과 의의

선생안에 기록된 기재내용은 크게 보아 1) 본인의 성명과 자, 출생년을 표기한 인명부, 2) 姓貫을 표기한 貫鄉地, 3) 등과시기와 입원연대를 비롯하여 역임한

관직, 이력사항과 향년, 그리고 父祖曾을 기본으로 친가, 처가, 외가에 걸친 인적 배경을 기재한 행력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 나누어 보는 이유는 성명과 본관은 대자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아래 자와 출생년이 小字雙行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각 개인을 인식하는 기본요소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본관을 기재한 관향지는 기재가 많이 누락되었음에도 대자로 특필된 것은 이들 의관이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자보다는 문과 혹은 가계를 중심으로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러한 상황은 『醫等第譜』 등 과거 입격자들의 명단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점으로 조선이 씨족 중심의 가계배경이 어느 한 인물의 능력과 기술 여하에 앞서 우선시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다만 이 선생안에서는 성명 아래 소자로 자와 출생년을 적고 바로 그 아래 관향지를 대자로 적어 이름 다음으로 크게 부각시켰으며, 관향지를 표시하는 지역명 아래 일일이 ‘人’자를 덧붙인 것도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좀 더 후대에 작성한 『태의원선생안』에서는 성명 위쪽에 소자로 표기하고 있어 관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세부기재사항이 드러나는 행력향의 기재 내역을 보면 비교적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연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최종직위 이외에 불만한 기재 내역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시기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최종 직위나 품계로부터 父祖曾으로 이어지는 직계와 처가, 외가에 이르기까지, 한 인물을 중심으로 3族에 해당하는 가계 사항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다. 직계의 경우에는 각각 성관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하였으며, 처족과 외가의 경우에는 본관과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혼동을 방지하였다. 처가의 경우에도 부조증을 모두 기재하였는데, 이 경우 처부의 성명은 관향과 성명을 모두 기록하였고 이후 처조부와 처증조부는 역시 친가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단축하여 기재해 놓았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본인의 외가 뿐만 아니라 처의 외가까지 적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혹 후처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물, 10여명 이상 기록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 특별히 상하대에 걸쳐 내의를 지낸 경우, 子姪 혹은 兄弟 관계를 표시한 곳도 있으며, 양자를 들이거나 입양된 경우, 생부

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다소 지나치리만큼 상세하게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은 다른 선생안류에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의과 시험을 치를 때 제출하는 가계사항을 적은 단자를 참조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면에서 이 선생안은 의과입격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의등제보』 혹은 『의과선생안』과 기존의 선생안을 병행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의과에 등과한 이후 관력사항에 좀 더 치중하고 인적사항이 소략한 『太醫院先生案』³⁵⁾과 대비해 다분히 가계 중심적이어서 중인신분의 의관 집안의 혼맥과 인척관계를 살펴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행력항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등과시기와 입원시기가 조대와 간지로 표기한 해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 前代의 망실된 경우이거나 후대의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기재하는 필수항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역임한 관직을 약칭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관과 중추관이 대부분이며, 증직도 다수이다.

그 다음으로는 享年, 首醫 재임 여부나 기간, 또한 공신이나 군호, 호나 별칭, 혹은 기타 개인의 다소 사적인 기록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내용들이 망라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재내용은 한 사람이 1관을 차지해 비교적 정형화된 틀 속에서 간략한 인물전이 요약되었지만 사람에 따라 누락된 부분도 많고 분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저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보아 일정한 형식의 틀에 맞추어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간략한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기재했다고 볼 수 있다.

35)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태의원선생안』은 이우성 편, 『瘡瘍集 외 1종』(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요녕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으로 권수제에는 『太醫院先生案 附兩廳』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조조로부터 고종재위 초년까지 약 380여 명에 달하는 내의원의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內鍼醫先生案』과 『醫藥同參先生案』이 붙어 있어 현전하는 의과선생안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의약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본고에서는 다만 수록내용과 작성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 수록인물과 특징만을 비교하여 대조표로 제시하였다.

<표 2> 『내의원선생안』의 항목별 기재사항

1) 인명부	2) 관향지	3) 행력항
본인 성명	姓貫(○○人)	醫科入格 시기(朝代, 간지)
혹은 改名字		입원 시기
字		직위, 직책, 공훈
생년(간지)		首醫
		역임 官歷(外職, 別廳 등)
		享年
		父祖曾, 처가, 외가
		기타 저술이나 雅號, 君號, 諡號 혹은 작성자 특기사항

특별히 이 『내의원선생안』에 수록된 인물과 기재 내용은 고종대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태의원선생안』과 매우 유사하지만, 수록내용의 기준이나 작성시기가 다소 달라 비교연구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 향후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조표를 부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³⁶⁾

이 선생안을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는 허준시대에 임진왜란 이후 일실된 내의 자료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다시 작성된 선생안을 祖本으로 대대로 추록해 내려오던 것을 方震夔-方世範-方泰素-方孝惠으로 이어지는 온양 방씨 의관 가계에서 작성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 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습 의원 집안으로 보이며, 대대로 의과를 거쳐 首醫와 內醫를 배출한 대표적인 중인 의관 가계라 할 수 있다.

선생안의 작성시기와 전본 계통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허준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기억에 의거해 복구한 일부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여, 선생안의 원형을 만든 이후 내의원 의관들 사이에 전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내의원 의관 배출 가계 가운데 하나인 온양 방씨 집안에서 대대로 추가하여 전사해 오던 전본을 토대로 대략 정조 재위 중인 1792년~1800년 6월 이전 전문을 정사하였으며, 순조 재위 연간인 1812년~1814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17인에 대

36) 부록 표: 『내의원선생안』과 『태의원선생안』 수록인물 대조 참조.

한 내용을 추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한 권의 책에 담겨진 내용은 망실되었던 조선 중기 이후 궁중 어의로 활약했던 수많은 의관들의 생애를 조명하고 사적을 추적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 하지만 아쉽게도 몇 가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임란 이전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산일된 점이다. 허준이 직접 지은 것으로 밝힌 서문의 내용처럼 왜란 이후 기억에만 의존하여 작성해야 했던 듯 허준을 기점으로 이전 인물은 불과 40인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이 활약한 상한 연대도 연산~중종조를 벗어나지 않아 신분적으로 비교적 고착되지 않았고 많은 의학서를 편찬하고 의료제도가 마련되었던 조선 초기 의약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알려졌던 선생안의 기록 역시 매우 소략한 실정이라 다소 보완적인 자료로 소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포품을 가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허준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행적을 밝혀놓겠다는 의지와 달리 실지 기재내용에는 이들의 활약상이 상세하게 노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친가, 처가, 외가 등 인척관계를 상세 기술함으로써 의관 자신의 가문 의식이나 내의로서의 자존감을 고양하여 행실을 스스로 제어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친가와 외가, 처가 등 과거에 참조되었던 가계 배경만을 위주로 구성되어 개인의 능력과 공헌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두 번째 평가와 연계된 것이지만 당자의 관력과 공훈 혹은 증직 등 최소한의 이력과 업적의 결과만을 기록하여 개개인의 능력이나 공적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이다. 『태의원선생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선생안마다 다소 개인 신상이나 특이사항 특히, 저술과 같은 학술적인 면모나 포상과 상훈 등 공적, 院志를 작성³⁷⁾하였거나

37) 안상우, “『내의원선생안』 원문해제,” 『내의원선생안』(허준의학전서 7)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10), 38면. “方泰興 … 著院志七篇.”

官規³⁸⁾를 세우고 開廳³⁹⁾ 하는 등 행정적인 업적, 나아가 사림의 편에서 활약하다가 사회에 희생된 정치사적인 기여⁴⁰⁾ 등을 다소 융통성 있게 적고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과시를 거친 과거입격자 중에서도 내의원에 근무한 내의들만을 중점으로 등재한 점이다. 물론 이 점은 『내의원선생안』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작성 당시 이미 전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의약을 관장하는 관료 중에서도 국왕과 근친의 의약에 관여하는 극히 일부의 의관들만 선별함으로써 일선에서 실지 진료에 투입되었던 대부분 의관들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의료행정과 의료제도 운영상을 추적하기에는 다분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태의원선생안』에는 內鍼醫先生案이나 議藥同參先生案이 포함되어 있어 의과를 거치지 않고 집안의 후광을 받지 않고서 오로지 의료기술만으로 입신 활약했던 인물들이나 유학을 기반으로 의서를 강독하여 의약동참에 관여하고 의학교육이나 저술에 주력했던儒醫들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어 이 『내의원선생안』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특히 일정기간만 존속했던 治腫廳이나 임시기구인 侍藥廳, 護產廳 등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의 활약이 적시되지 않은 점들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 양방중심의 조선시대 사회제도 안에서 400여년에 걸쳐 중인신분의 기술직 관료로서 활동한 내의원 의관들의 인적사항과 가계, 관력 등이 기재된 선생안은 조선후기 한국의학사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고증자료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특히 허준의학전서에 수록된 본 『내의원선생안』은 기존에 알려진 몇 가지 선생안이나 의과보에 수록되지 않은 허준의 자찬 서문을 싣고 있어 허준과 조선 중기 의학연구에 매우 큰 연구가치가 있다. 또한 기재방식이나 수록한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자료와 상당 부분 상이점을 갖고 있어 역대의학인물에 많은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

38) 이우성, “태의원선생안,” 『서벽외사해외수필본 7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466면. “權愉 … 掌務官規矩, 自此公始.”

39) 이우성, 『내침의선생안』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495면. “趙徵奎 … 作廳自公始.”

40) 이우성, 『태의원선생안』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454면. “安瑤 … 中宗朝 … 己卯士禍…”

<참고문헌>

- 강연석, 김남일,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 (I ~ V).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011.
- 구완희. “조선후기의 수령제 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2.
- 김종덕, 안상우, 이경성. 『이제마 평전』.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서울: 들녘, 2011.
-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 儒醫列傳』. 서울: 들녘, 2011.
- 김양수 외.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동방학지』 제136집(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12). 37-90.
- 맹웅재, 류희영, 신민교. 『한국의약인명사전』. 서울: 의성당, 1991.
-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6권 1호 (2013. 9).
- 박훈평. 『조선의인지』.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 안상우. “『내의선생안』 원문해제.” 『내의선생안』(허준의학전서 7).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10.
- 이규근. “조선후기 內醫院 醫官 연구 - 내의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집(조선시대사학회, 1997).
- 이남희. “조선후기 주학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고문서연구』 39권(한국고문서학회, 2011).
- 이남희. “장서각 의팔세보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장서각』 제21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4). 165-195.
- 이남희. “조선 전기의 율관: 그 신분적 성격과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5권(고려사학회, 2003). 341-375.
- 이우성. “『창진집 외』(太醫院先生案).” 『서벽외사해외수질본 7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이창현 원작, 김양수 편. 『성원록』. 서울: 오성사, 1985.

조종운 편. 『씨족원류』. 서울: 보경문화사, 2002.

한미경. “역과방목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0집(서지학회, 2005. 6). 341-376.

한미경. “역과보에 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한국 문헌정보학회, 2006. 6). 125-150.

한미경. “역과유집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서지학회, 2006. 9). 185-214.

한미경. “조선의 수학자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서지학회, 2011. 12). 387-409.

홍원식. “太醫院先生案 附兩廳 해제, 『창진집 외』,” 『서벽외사해외수질본 78』. 아세아문화사, 1997.

[부록] 내의원선생안 수록인물 대조표*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1	權 纘	○	○	
2	河宗海	○	○	
3	高世輔	×	○	
4	金順蒙	○	○	
5	鄭鶴年	○	○	
6	金興壽	×	○	
7	朴世舉	○	○	
8	盧漢明	○	○	
9	金公菩	×	○	
10	安 瓚	×	○	
11	趙世璘	○	○	
12	姜二儀	○	○	
13	劉永貞	○	○	
14	金允闇	○	○	
15	李 蘖	○	○	
16	李 芝	○	○	
17	金世達	×	○	
18	柳之蕃	○	○	
19	洪彦信	○	○	
20	裴麟壽	○	○	
21	李世卿	○	○	
22	李潤梁	○	○	
23	金世勳	○	○	
24	李夏孫	○	○	
25	柳 潁	○	○	
26	金允獻	○	○	
27	李無競	○	○	
28	金世佑	○	○	
29	金夢吉	○	○	
30	慶 雱	○	○	
31	延壽聃	○	○	
32	方孝忠	○	○(忠孝)	태의원선생안에 方忠孝로 기재. 방유령의 서자로 추정.
33	吳 玠[ㄹ + 卞]	○	○	

* 전체목록의 순번은 수록인물수가 더 많은 태의원선생안의 수록순을 따랐음.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34	安德受	○	○	
35	楊禮壽	○	○	
36	鄭 樞	○	○	
37	金兆齡	○	○	
38	曹彭老	○	○	
39	全汝彭	○	○	
40	安光翼	○	○	
41	鄭士忠	○	○	
42	金景孚	○	○	
43	李仁祥	○	○	
44	朴 薑	○	○	
45	李公沂	○	○	
46	許 浚	○	○	
47	趙清命	○	○	
48	光允禮	○	○	
49	金允恭	○	○	
50	金泰國	○	○	
51	鄭敬先	○	○	
52	孫士銘	○	○	
53	南應命	○	○	
54	柳 珉	○	○	
55	曹 紳	○	○	
56	楊智壽	○	○	
57	申 諧	○	○	
58	趙英璿	○	○	
59	安夢得	○	○	
60	金應鐸	○	○	
61	李延祿	○	○	
62	安正國	○	○	
63	鄭禮男	○	○	
64	石守道	○	○	
65	李 坤	○	○	
66	閔思仁	×	○	
67	申汝櫓	○	○	
68	趙興男	○	○	
69	鄭仁男	○	○	
70	堅 霖	○	○	
71	南 瑬	○	○	
72	趙德男	○	○	
73	李命源	○	○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74	金 鎰	○	○	
75	申得一	○	○	
76	李憲汀	○	○	
77	金忠儀	○	○	
78	李永壽	○	○	
79	李각[彳+各]	○	○	
80	李種英	○	○	
81	劉彥邦	○	○	
82	李希憲	○	○	
83	李英男	○	○	
84	崔順立	○	○	
85	堅後閔	○	○	
86	李 循	○	○	
87	安 頊	○	○	
88	朴弘憲	○	○	
89	咸柱齡	○	○	
90	黃 晨	○	○	
91	尹知微	○	○	
92	金景行	○	○	
93	金嗣男	○	○	
94	康孝義	○	○	
95	尹孝曾	○	○	
96	孫夢祥	○	○(夢象)	태의원선생안 孫夢象
97	康順儉	○	○	
98	尹敬世	○	○	
99	安國臣	○	○(國信)	태의원선생안 安國信
100	鄭宗禮	○	○	
101	李好儉	○	○	
102	方承男	○	○	
103	金蓋誠	○	○	
104	南 渤	○	○	
105	辛德淸	○	○	
106	李順元	○	○	
107	安孝男	○	○	
108	李誠立	○	○	
109	金孝忠	○	○	
110	鄭柑壽	○	○	
111	許 瀟	○	○	
112	尹 穢	○	○	
113	尹弘任	○	○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114	劉正邦	○	○	
115	宋擎日	○	○	豊徳人 후 慶州人
116	趙汝櫓	○	○	
117	崔得龍	○	○	
118	李春揚	○	○	
119	朴 頤	○	○	
120	柳德澤	○	○	
121	朱以南	○	○	
122	韓尙愈	○	○	
123	南應琛	○	○	
124	朴升馨	○	○	
125	崔有後	○	○	
126	鄭尙僑	○	○	
127	朴生榮	○	○	
128	安志淵	○	○	
129	鄭 瑀	○	○	
130	權 愉	○	○	
131	全德立	○	○	
132	尹弘佑	○	○	
133	張翼漢	○	○	
134	安景昌	○	○	
135	李柱漢	○	○	
136	辛器頤	○	○	
137	崔興勃	○	○	
138	張昌漢	○	○	
139	邊永淸	○	○	
140	金立誠	○	○	
141	金壽巖	○	○	
142	李東馨		○	태의원선생안보다 5섯차례 뒤에 기재.
143	崔聖任	○	○	
144	柳 謹	○	○	
145	金慶華	○	○	
146	全 頤	○	○	
147	韓道昌	○	○	
148	朴廷圭	○	○	
149	李時哲	○	○	
150	金汝器	○	○	
151	李弘章	○	○	
152	尹聖耆	○	○	
153	李命常	○	○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154	申 汎	○	○	
155	鄭斗俊	○	○	
156	李尙蕃	○	○	
157	玄萬運	○	○	
158	全 頤	○	○	
159	鄭惟覺	○	○	
160	尹 昶	○	○	
161	金壽峯	○	○	
162	全世弘	○	○	
163	韓俊興	○	○	
164	崔萬尙	○	○	
165	尹聖輔	○	○	
166	韓重愈	○	○	
167	方震夔	○	○	
168	全悌望	○	○	
169	玄瑞夏	○	○	
170	金國賓	○	○	
171	梁就廈	○	○	
172	申熙溟	○	○	
173	崔廷豪	○	○	
174	康汝泰	○	○	
175	金 重	○	○	
176	李道元	○	○	
177	張聖維	○	○	
178	趙興瑀	○	○	
179	李重蕃	○	○	
180	趙慶基	○	○	
181	李時弼	○	○	
182	鄭文益	○	○	
183	玄信綱	○	○	
184	金文衍	○	○	
185	韓再愈	○	○	
186	李長白	○	○	
187	金 埴	○	○	
188	尹祉大	○	○	
189	許 信	○	○	
190	崔周慶	○	○	
191	金應三	○	○	
192	鄭趾顯	○	○	
193	尹爾衡	○	○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194	朴道煥	○	○	
195	金必佑	○	○	金必祐
196	崔龜慶	○	○	
197	洪大演	○	○	
198	李以植	○	○	
199	崔德齡	○	○	4칸 뒤에 기재
200	玄起鵬	○	○	
201	金壽峴	○	○	
202	玄載觀	○	○	
203	康天衡	○	○	
204	李頤夏	○	○	
205	韓斗衡	○	○	
206	鄭億齡	○	○	
207	鄭行謹	○	○	
208	尹興大	○	○	4칸 뒤 기재
209	秦後觀	○	○	
210	趙昌會	○	○	
211	方泰輿	○	○	
212	李萬祥	○	○	
213	金必衍	○	○	
214	金東桓	○	○	
215	金履亨	○	○	
216	辛世翊	○	○	
217	金聖守	○	○	
218	鄭東羽	○	○	
219	韓聖鳳	○	○	
220	金東標	○	○	
221	尹重莘	○	○	
222	權 煥	○	○	
223	崔始崙	○	○	
224	權尙殷	○	○	7칸 뒤 위치
225	李世珪	○	○	
226	李興門	○	○	
227	鄭趾彦	○	○	
228	金履遂	○	○	
229	許 礎	○	○	
230	慶 絢	○	○	
231	鄭得禧	○	○	4칸 뒤 위치
232	秦興白	○	○	
233	權尙殷	○	○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234	李善恒	○	○	
235	鄭得禧	○	○	
236	朴道潤	○	○	
237	金光國	○	○	
238	李以楷	○	○	
239	鄭行哲	○	○	
240	鄭行集	○	○	
241	崔宅中	○	○	
242	金宗壽	○	○	金應壽로 개명
243	李世瑀	○	○	
244	玄處明	○	○	
245	崔觀泰	○	○	
246	李世玉	○	○	
247	鄭興祥	○	○	
248	鄭允說	○	○	
249	鄭 滂	○	○	
250	金孝儉	○	○	
251	李文載	○	○	
252	安世淵	○	○	
253	申應游	○	○	
254	方孝民	○	○	
255	李養善	○	○	李維善으로 개명
256	玄啓淳	○	○	
257	金致儉	○	○	金泰儉으로 개명
258	方泰智	○	○	
259	慶成運	○	○	
260	洪達洙	○	○	
261	崔重斑	○	○	
262	金光顯	○	○	
263	朴明達	○	○	
264	許諱[石+廉]	○	○	
265	康命徽	○	○	1칸 뒤에 위치 康命吉로 개명
266	方泰衍	○	○	方泰達으로 개명
267	邊致翰	○	○	
268	崔尙圭	○	○	崔恒圭로 개명
269	李鼎福	○	○	李鼎玉으로 기재
270	金成五	○	○	
271	鄭 璉	○	○	
272	李東郁	○	○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273	李命鑑	○	○	
274	李惟鑑	○	○	
275	朴昌根	○	○	
276	康晉三	○	○	
277	鄭 瑋	○	○	
278	朴 炫	○	○	
279	李周憲	○	○	
280	秦 泳	○	○	
281	方泰迥	○	○	
282	鄭錫常	○	○	鄭維常으로 개명
283	李完白	○	○	
284	李挺霖	○	○	
285	金濟默	○	○	
286	金宗建	○	○	
287	李玄圭	○	○	
288	金進源	○	○	
289	玄必采	○	○	
290	吳仁豊	○	○	
291	方禹疇	○	○	
292	秦東秀	○	○	
293	鄭 遇	○	○	
294	金 槩	○	○	
295	高景殷	○	○	
296	崔遠基	○	○	
297	吳千根	○ (-天-)	○ (-千-)	吳天根으로 기록
298	李思仁	○	○	
299	李最秀	○	○	
300	李惟鐸	○	○	
301	朴 烜	○	○	
302	玄在德	○	○	
303	鄭楠秀	○	○	
304	崔 曾	○	○	
305	李福膺	○	○	
306	李彥厚	○	○	
307	慶 輯	○	○	
308	崔 源	○	○	
309	朴致秀	○	○	
310	金景琳	○	○	
311	金龜紹	○	○	
312	方孝惠	○	○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313	金啓勳	○	○	
314	崔漢植	○	○	
315	金壽仁	○	○	
316	金近源	○	○	
317	玄 鉀	○	○	
318	李圭南	○	○	
319	玄禹瑞	○	○	
320	安聖輔	×	○	
321	吳俊瑞	×	○	
322	崔 暄	×	○	
323	卞鍾淳	×	○	
324	李亨基	×	○	
325	李鍾呂	×	○	
326	秦慶煥	×	○	
327	吳景煥	×	○	
328	金有鼎	×	○	
329	安宗錫	×	○	
330	金驥男	×	○	
331	李慶年	×	○	
332	金 珪	×	○	
333	李浩兢	×	○	
334	鄭有曾	×	○	
335	李悌寅	×	○	
336	金景球	×	○	
337	金善仁	×	○	
338	卞鍾協	×	○	
339	南正吉	×	○	
340	卞文燮	×	○	
341	玄光宣	×	○	
342	李宜慶	×	○	
343	崔光植	×	○	
344	李尙復	×	○	
345	方載鏞	×	○	
346	安與善	×	○	
347	卞宗浩	×	○	
348	李重植	×	○	
349	金鴻男	×	○	
350	李漢慶	×	○	
351	李宗惠	×	○	
352	朴基顯	×	○	

『內醫院先生案』 편찬고

	성 명	내의원선생안	태의원선생안	비 고
353	方夔鏞	×	○	
354	金慶勳	×	○	
355	卞哲淵	×	○	
356	崔好植	×	○	
357	金載萬	×	○	
358	劉漢緯	×	○	
359	秦喜鳳	×	○	
360	卞 崑	×	○	
361	金濟慶	×	○	
362	金相義	×	○	
363	金 潑	×	○	
364	李敬仁	×	○	
365	鄭在晩	×	○	
366	李能基	×	○	
367	鄭在元	×	○	
368	洪顯普	×	○	
369	李漢維	×	○	
370	李章懋	×	○	
371	崔性愚	×	○	
372	李在瑗	×	○	
373	朴完鏞	×	○	
374	李漢宗	×	○	
375	金 潤	×	○	
376	鄭宜謙	×	○	
377	崔佑植	×	○	
378	金觀祚	×	○	
379	邊應翼	×	○	
380	金正善	×	○	
381	李兢柱	×	○	
382	鄭麟夏	×	○	
383	金在瑚	×	○	

